



보도시점 2026. 4. 24.(금) 10:00 (2026. 4. 24.(금) 석간)

고유가 위기 속, 일하는 방식 바뀐다. 유연근무 확산에 민간 참여 확대

- 시차·재택근무 등 확산을 위한 노동부-국토부 합동 기업 간담회 개최
- 정부 유연근무 지원 강화, ‘육아기 10시 출근제’ 요건 완화도 추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주)메디쿼터스 ▲(주)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주)엑셀세라퓨틱스 ▲(주)케이지제로인 ▲(주)하바스코리아)이 참석하였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으로 유연근무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여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출퇴근 관리와 정보·보안 등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 또는 사용료도 지원한다. 또한 유연근무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운영 매뉴얼 배포, 컨설팅 연계 등을 통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육아기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올해 신설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기 노동자가 6개월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규정 제출도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업들이 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는 출퇴근 시차시간*을 설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두의카드**’ 정책을 시행 중이므로 유연근무와 결합하여 보다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광위에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퇴근시차시간) 5:30~6:30, 9~10시, 16~17시, 19~20시

** (정률제) 출퇴근시차시간에 환급률 30%p 인상 /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50% 일괄 인하

- 붙임 1. 간담회 개요 및 참여기업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3. 유연근무 지원제도
 4.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편방안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팀 장	이상전	044-202-7962
			사무관	김상엽	044-202-7497
			주무관	오영배	044-202-750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광역시설정책과 광역버스과	책임자	과 장	안광열	044-201-5100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4-201-5102
		담당자	사무관	송하운	044-201-5069



□ 배경

-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 등 범정부 대책 추진, 대중교통 출퇴근 수요 증가에 따른 혼잡 예상
-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

□ 주요 내용

- 일시 /장소: 4.24.(금) 10:00~11:00 /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고용지원정책관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광역시설정책과장
 - (우수기업) (주)메디쿼터스, (주)비트원스페이스, (주)엑셀세라퓨틱스, (주)케이지제로인, (주)하바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 세부 일정 (안)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5'	▶ 참석자 소개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10:05~10:10	5'	▶ 인사 말씀(각 2분)	장관 , 위원장
10:10~10:15	5'	▶ 유연근무 지원사업 소개	지원국장
10:15~10:25	10'	▶ 유연근무 활용 사례 공유	기업(2개소)
10:25~10:55	30'	▶ 유연근무 활용 경험담, 애로사항, 유연근무 확산 방안 등 논의	기업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장관 , 위원장

□ 간담회 참여기업

연번	기업명	업종(규모)	주요 사례
1	(주)메디쿼터스	제조업 (160명, 중소)	▶ (유연) 분 단위 시차출퇴근, 임신기 근로자 재택근무 권장 ▶ (기타) 연차 당겨쓰기,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기념일 2시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 (효과) 개인의 업무 방식 및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 조정, 일과 삶의 균형 증진
2	(주)비트원 스페이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명, 중소)	▶ (유연) 시차출퇴근·재택·원격근무 ▶ (기타) 임신 전 기간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가족 사랑의 날(조기퇴근), 문화생활비 지원 ▶ (효과) 프로젝트 및 조직 몰입 증가, 물리적 거리보다 업무 효율이 우선이라는 인식 확산
3	(주)엑셀세라 퓨틱스	제조업 (72명, 중소)	▶ (유연) 시차출퇴근·선택·재택 ▶ (기타) 주32시간제, 생일휴가 ▶ (효과) 출근 스트레스 감소, 조직 내 자율성과 신뢰 기반 문화 확산
4	(주)케이지제로인	정보통신업 (120명, 중견)	▶ (유연) 시차출퇴근·선택·탄력·재택 ▶ (기타) 타임키퍼, 장기근속 휴가, 男육아휴직20% 등 ▶ (효과)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 달성, 자기주도적 일정 조율 및 책임의식 확산
5	(주)하바스코리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명, 중소)	▶ (유연) 주2회 재택근무, 위케이션, 자율좌석제 ▶ (기타) 주당 평균 35시간 근무(10~18시 근무), 매월 셋째주 금요일 패밀리데이(조기퇴근), 연말 섯다운 ▶ (효과) 업무몰입도 30% 증가, 퇴사율 19% 감소
6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명, 중소)	▶ (유연) 시차출퇴근, 위케이션 ▶ (기타) 육아기 10시 출근제, 4.5일제, 아이·반려견 동반 출근 ▶ (효과) 높은 여성 비중(85.7%),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발히 사용, '25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높아지면서
기업과 국민 모두 체감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기존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 운영, 시스템 구축, 보안 문제 등으로
유연근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 시스템 지원,
컨설팅과 매뉴얼 제공까지
유연근무 도입과 운영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가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하루 1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가정양립 효과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전반의 대전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연근무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더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업 여러분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유연근무 기업지원제도

유연근무 장려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노동자의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재택·원격근무 ▲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최대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일반노동자의 두 배 지원



시스템 지원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미도입한 기업이라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위한
시스템 투자비용의 일부(80% 1천만원 한도)를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은 시스템 사용료 100%(연 180만원 한도) 지원



도입·운영 경험이 없는 기업이라면?

①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상 교육, 홍보 상담 지원연계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 26년 지원대상 산업단지 : 구로디지털산단, 반월시화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②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직무분석 등을 통해 최적 유연근무 설계 등 기업 내 제도화 지원

※ 문의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플랫폼(<http://kwpi.or.kr>)

컨설팅, 교육 등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 제도 개요

- (지원내용)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 지원(월 30만원)
- (지원요건) ①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1일 1시간 단축 허용, ②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③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④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등
- (지원규모)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
- (지원기간) 노동자당 최대 1년(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출근제
 합산하여 최대 1년)

□ 활성화 방안

- (요건 완화) 제도 확산을 위해 노동자의 6개월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기 자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서류 간소화) 근로계약서로 소정시간 단축 확인가능하므로 취업
 규칙·인사규정 등 미제출하되, 권고로 완화
-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제출 대신, 행정망 확인으로 간소화 추진

기존 요건	개선
6개월 이상 근속 육아기 노동자 신청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단축 규정 의무화	의무화 → 권고로 변경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미제출 및 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근로계약서·임금지급증빙·출퇴근기록	좌 동